



한국틴스타

2016년 6월
제46호

www.teenstar.or.kr

“여러분은 하느님께서로부터 부르심 받은 생명의 봉사자들입니다.”

지영현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국틴스타 대표

† 찬미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부터 한국틴스타 대표를 맡게 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지영현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애쓰고 계신 틴스타 교사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틴스타(TeenSTAR)는 ‘성인의 책임감이라는 맥락에서 본 성교육 (Sexuality Teaching in the context of Adult Responsibility)으로 빌링스의 배란법을 기초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식적, 영성적 측면을 포괄하는 교육과정의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틴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성·생명·사랑’의 가치를 알려주고 이들이 지닌, 이미 하느님께서 이들 가슴 속에 심어주신 진리추구에 대한 열망을 존중하면서 **‘세상에 온 하느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틴스타 교사 여러분의 청소년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마음은 곧 **하느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시선과 마음**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시선을 받는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

들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며 내 친구와 이웃의 생명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신비에 참여케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인 몇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풍족하진 않지만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잊지 않았고 늘 하느님께 희망과 열망을 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성당봉사에도 누구보다 앞장서 행하셨던 분들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모습을 닮아 착하고 예쁘게 성장하였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이 외에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채 스무 살도 되지 않았거나 갓 스무 살을 넘은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더 필요할 것 같은 자녀들이 자신의 아기를 임신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 기가 막혔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할 말을 잊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간 부모의 곁을 떠나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랐던 이들에게 그 시간이 오늘이라는 것은 상상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하여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직 혼인적령기가 아닌 자녀라면 말입니다.

이 분들도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나쁜 생각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그날 부모로서의 자녀를 향한 소박한 꿈을 스스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아이가 이렇게 부모에게 말하기 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임신한 아기도 하느님께서 귀하게 보살피라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인데 분명 하느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분들은 한결같이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 아기가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기가 예뻐 죽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자녀가 미워지기도 하지만 아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잘한 결정인지! 우리 가정에 보배와 같은 아기로 자랑합니다. 자녀들도 어린나이지만 아기의 부모답게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대견스러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성모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안나와 요아킴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야말로 '오늘날의 안나와 요아킴과 같은 부모가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안나와 요아킴에게 딸 마리아가 얼마나 귀한 자녀였을까요?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소박한 소망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똑같은 것 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안나와 요아킴의 마음도 분명 당황하고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모로서의

아픔을 모두 다 자신들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그의 잉태된 아기도 받아들입니다. **그 아기가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자녀를 잉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적지 않은 가정에서 혼인적령기 이전의 자녀에게 새로운 생명의 잉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두가 안나와 요아킴과 같은 부모가 되어 주지 못합니다. 아니 안나와 요아킴과 같은 부모가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가정에 하느님의 선물인 아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이 사건이 '없던 일처럼 되기를' '사건 이전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아기가 분명 하느님께서 그 가정에 특별하게 보내주신 큰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선물(생명의 복음 1항)이며 성가정으로 변화시켜 주는 사건임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 부모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아픔을 가슴에 묻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자녀를 격려하는 우리 시대의 안나와 요아킴과 같은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이 사실은 생명이치를 경시하고 죽음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생명의 백성, 생명을 위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틴스타 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지식을 전달하는 단순한 정보제공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삶으로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세상에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기쁜 소식을 우리 삶속 깊은 곳에서부터 체험하며 살아가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우리와 만나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넓게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샘솟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생명의 봉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틴스타 교사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청소년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틴스타는 사랑입니다.

공수민

제124차 워크숍 수료(서울)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교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 초등교사입니다. 저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사랑받기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을 할 때면 자연스럽게 ‘사랑과 성’에 대해서도 생각의 꼬리가 이어지곤 합니다. 제 안에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갈수록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기준과 타협을 맺으면서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2016년 1월, 124차 틴스타 교사 양성 연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성과 사랑에 대한 관심이 있던 차에 꼭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틴스타 연수를 통해서 저는 사랑이신 하느님을 닮은 우리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생명으로 향하는 사랑이야말로 온전한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 생각했었던 사랑에 대한 기준이 본질적이고 옳은 것임을 확신하게 되면서 평화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 평화가 마치 제 안에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마음껏 사랑을 하고 제 안의 사랑에 대한 신념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런 저의 생각과 행동을 틴스타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스마트 매체를 통해 세상의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요즘, 사람들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교육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올바른 성교육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의미를 숙고해 보고 이를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의 아이들은 SNS, 인터넷, 대중매체를 통해서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쉽게 접하게 되는 음란물, 성적인 메시지를 담은 아이돌 그룹의 노래, 춤, 의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이돌 문화가 삶의 일부가 되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성에 대한 가치 교육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틴스타 교육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에 대해 자유롭고 밝은 분위기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토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이야기 해 보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어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사랑과 성의 가치에 관하여 진지하게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어른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른들 스스로 내면의 가치가 흔들려 올바른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 역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까지도 주셨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을 닮은 아이들과 두려움 없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아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선함과 사랑과 생명에 대한 가치를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틴스타 교육을 받고 저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틴스타는 사랑입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1코린 13,1)’**

성교육에 대한 응답 :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에서 말하는 성교육¹⁾

얼마 전 발표된 교황님의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은 가정에 대한 전 세계 주교님들의 고민과 더불어, 오늘날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그와 함께 아이들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성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권고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²⁾의 고민에서 시작합니다. 공의회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이면서도 현명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자문합니다.

먼저 이 사회에 만연한 무분별한 성적인 내용들을 언급하며, 이런 다양한 정보가 아이들의 성장에 유익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새롭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성교육에서 강조된 ‘수치심’의 건전한 모습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치심이 없다면, 사랑은 왜곡되고, 단지 성적 강박관념, 혹은 비인간적인 성폭력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교육에서 ‘안전한 성관계(safe sex)’와 관련하여 ‘피임’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성성(sexuality)의 최종 목적인 자연적인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는 뜻하지 않게 생긴 아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어가, 바로 ‘피임’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에게 성숙함, 가치,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헌신과 혼인의 중요함이 아닌 그들의 몸과 욕망만을 찾는 무책임한 일이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의 다양한 표현과 상호

간의 관심과 돌봄, 사랑 안에서의 존중, 그리고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소통을 청소년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피임을 위한 성교육이 놓치는 ‘가치들’에 대해 강조합니다. 이와 더불어 책임 있는 모습은 서로에 대해 인격적인 존중과 함께 상호 배려 등의 다양한 가치와 함께 서로를 발전적인 관계로 이끕니다. 그리고 혼인 안에서의 성적 하나 됨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선물이 됩니다.

사랑과 육체적인 애착을 혼동할 때, 성관계는 하나 됨이 아니라, 서로 나와 상관없는 남(타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성교육은 육체의 언어를 통해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교육은 가벼운 무엇이 아닙니다.

또한 성교육은 타인에 대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때, 성적인 매력에 갖는 긍정적인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성은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은 무엇이 아닌 존중받는 것이 됩니다. 또한 성교육은 성적인 특성이 그 사람의 역할까지 규정하는 것은 아님을 말합니다.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로 배려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우리가 되기 위해 이런 고정관념을 넘어야 하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경직된 남성성·여성성이 아닌 서로 존중받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인간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성교육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1) 이 내용 《사랑의 기쁨》 7장 280~286항을 번역 요약한 것입니다.



응급 피임약 문제에 관하여

박수정 가타리나 기자
평화방송 보도총국 교계사회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0일 응급 피임약을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년간 피임제 사용 실태와 부작용, 인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대로 응급 피임약의 의약품 분류를 전문 의약품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톨릭교회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식약처가 2012년 전문 의약품인 응급 피임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누구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하려 했기 때문이다. 당시 식약처는 가톨릭교회와 의사회에 반대에 부딪혀 응급 피임약의 일반 의약품 전환을 유예한 뒤 3년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최종 내린 결정에서 응급 피임약을 전문 의약품으로 두기로 했다. 다행스러운 결과지만, 보다 근본적인 생명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일이 큰 숙제로 남았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꾸리며 적극 대응

우리나라에 응급 피임약 판매가 허용된 건 2001년부터다. 응급 피임약은 처음부터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됐다. 당시 가톨릭교회는 응급 피임약 국내 시판 허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0년 뒤, 대한약사회는 피임을 원하는 여성이 언제든 쉽고 편하게 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응급 피임약을 전문 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때부터 응급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논의가 시작됐다. 가톨릭교회는 반대 성명을 내고, 시위를 벌이고, 미사를 봉헌하는 등 응급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결국 식약처는 응급 피임약

의 일반약 전환 논의를 미뤘다.

그러다 올해 초 응급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회는 이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특별히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응급 피임약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응급 피임약의 사회적·의학적·윤리적·법적 문제를 다각도 살피며 반대 논리와 근거를 촘촘하게 준비했다. 4·13 총선을 앞두고는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 응급 피임약의 일반 의약품 전환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복지부와 식약처에는 응급 피임약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응급 피임약 무엇인가

여성 호르몬을 강제로 조절하는 피임약은 사전 피임약과 사후 피임약(응급 피임약)으로 나뉜다. 사전 피임약은 자궁 내 배란을 억제해 생리를 늦춘다. 매일 한 알씩 3주간 먹어야 효과가 있는 사전 피임약은 생리주기를 조절하거나 임신을 피하려는 여성들이 주로 찾는다. 일반 의약품으로 의사 처방 없이 누구나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

사후 피임약은 응급 피임약으로 불린다.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먹어야 효과가 있다. 고농도 호르몬제라 한 번에 한 알만 먹게 돼 있다. 의사와 상담한 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전문약이다.

피임약 얼마나 위험한가

한때 갱년기 호르몬 치료제가 큰 인기를 끌었다.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줘 '젊음을 유지해 주는 약'으로 알

려졌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갱년기 증상 치료를 위해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그러나 인위적인 호르몬 조절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2002년 갱년기 호르몬제가 유방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했다. 최근 한 의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르몬제를 먹는 여성의 난소암 발병 위험은 복용하지 않는 여성보다 43%나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사전 피임약에 들어 있는 호르몬제 용량은 갱년기 호르몬 치료제의 3배 수준이다. 응급 피임약에 들어 있는 호르몬제 농도는 사전 피임약의 10배다. 응급 피임약은 이처럼 고농도의 호르몬제 이기에 부작용이 없을 수 없다. 또한 사전 피임약이든 응급 피임약이든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했을시 불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응급 피임약 설명서에는 이러한 설명이 나와 있다. **“성교 후 피임의 실패 후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120시간(5일) 이내에 이 약 1정을 복용한다. 복용 후 3시간 내에 토했을 경우에는 즉시 이 약 1정을 다시 복용 한다”**. 그만큼 구토 부작용이 흔하다는 이야기다. 한 번에 한 알만 먹게 돼 있는 응급 피임약이 두 알씩 포장돼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구토뿐만이 아니다, 복통, 출혈, 현기증, 유방 압통 등 설명서에 나온 부작용은 셀 수 없을 정도다.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몸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약이다.

응급 피임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은 “이러한 응급 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약을 파는 제약회사조차 응급 피임약의 반복적, 장기 복용을 권하지 않는 현실이다”고 말한다.

피임엔 사랑과 책임 없이 쾌락만 남아

가톨릭 교회가 응급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응급 피임약이 바로

낙태약이나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가톨릭교회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을 생명의 시작이라 여기는데, 응급 피임약은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수정란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이와 함께 교회는 응급 피임약이든 사전 피임약이든 인위적으로 인간 생명을 거부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바로 6세 교황은 회칙 **《인간 생명》**에서 피임에 관한 가르침을 분명히 제시했다. “피임을 목적으로 하거나 (피임)방법을 강구하는 모든 행위를 배격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임신을 피한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에서 성행위는 부부 사이를 전제로 한다. 부부간 성행위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책임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부가 서로에게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주는 행위를 통해 자녀가 탄생한다. 하지만 부부가 아닌 이들의 성행위에는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과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없다. 부부가 아닌 이들의 성행위에는 임신과 출산 자녀가 축복이나 선물이라 아니라 위험이자 부담이다. 결국 남는 건 피임과 쾌락뿐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부부 사이에서의 성행위만을 인정한다. 앞서 말했듯 부부 사이에서 이뤄지는 성행위는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충실함과 믿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피임 아닌 생명교육 전개해야

응급 피임약이 전문 의약품으로 확정됐지만, 우리 사회에 퍼진 피임 위주의 잘못된 생명 의식을 바로 잡는 일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올바른 생명 교육을 통한 생명 문화 보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쾌락주의, 자유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생명이 지닌 온전한 가치를 알고 지키는 곳은 결국 가톨릭교회뿐이다.

대구 틴스타의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대구 틴스타!

어느새 함께 한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2016년 4월 30일 대구 틴스타 사무실이 대구대교구 성토마스 성당 2층에 첫 동지를 갖게 되어 우리들의 작은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리가 마련되었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축복식을 가졌습니다.

이 날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켰던 틴스타 교사들께 감사할 드리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시간이었기에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을 다짐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듯 우리 틴스타 교사들도 항상 함께 하며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도움을 주신 틴스타의 여러 선생님과 주국진 신부님, 황성재 신부님, 김덕수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틴스타와 착한목자수녀회가 함께하는 화해 피정 안내

- 주관 및 주최 : 한국틴스타 / 착한목자수녀회
- 대상 :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 (선착순 8명, 당일 접수 안 됨)
- 일정 : 월 1회 개최 (2박 3일) 첫째 날 오후 3시~ 마지막 날 오후 1시30분
- 날짜 : 7월 15일(금)~17일(일)
- 장소 : 경기도 가평 성 빈센트 환경마을
- 참가비 : 한국틴스타에서 전액 후원
- 문의 및 접수 : 010-7440-8687



본부 및 지역소식

• 틴스타 소개특강

4월 대전교구 전민동 성당, 서울대교구 여의도 성당, 서울 계성고등학교(교사대상 예방교육)

6월 씨튼영성센터(예비부부 피정 특강)

본부소식

* 4월 30일 한국틴스타 전국대표교사모임을 통해 하반기 행사계획 및 틴스타 현장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 제9차 국제틴스타 대회가 이탈리아/로마에서 2016년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개최된다. 한국에서는 7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직원 동정

4월초에 김효정 라파엘라 직원이 한국틴스타에 새로운 식구로 입사하여, 사무국과 현장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서울 틴스타

* 매월 첫째 주 마다 명동 파밀리아 채플에서 생명을 위한 미사에 참석하고 있다.

* 5월 19일 착한목자수녀회 한국진출 50주년 기념미사가 춘천교구 스무숲 성당에서 있었다.

* 5월 27일 교사회의가 재개되어 매월 1회 진행 될 예정이다.

대구 틴스타

* 대구 틴스타 교사회 등록제 실시로 여성 틴스타, 남성 틴스타, 청년 틴스타로 구성되었으며, 스티디도 그룹별 편성하여 실시하였다.

* 5월 29일 대구대교구 100주년 기념 주교좌 범어 성당에서 청소년 주일 행사가 있었으며,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알아보고 '성(性)하면 떠오르는 것'을 적어서 <밝은 성>, <어두운 성>을 주제로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종료 현장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학교	경북	김천성의여고(고)A반, B반	김외택 선생
		김천성의여고(고)A반, B반	김태연 선생
		김천성의여고(고)A반, B반	노진화 선생
		김천성의여고(고)A반, B반	이예람 선생
		김천성의여고(고)A반, B반	허선아 선생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총)A반, B반	김정숙 선생
		대구가톨릭대학교(총)A반, B반	백민주 선생
		오천중학교(중)	하은경 수녀
		오천중학교(중)	서성진 선생
	대전	대전 가톨릭 신학대학교(총)	하정용 신부
	서울	서울대교구 대신학교(총)	하정용 신부
		무학중학교(중)	김길환 선생
		무학중학교(중)	김영숙 선생
		무학중학교(중)	양준희 선생, 박진경 선생
		무학중학교(중)A반, B반	이필숙 선생
	종교 단체	대구	예수성심시녀회 지원자모임(총)
대구대교구 성유대철 성당(고)			박주원 선생
대구대교구 복자 성당(총)			홍경희 선생
대구대교구 복자 성당(총)			백민주 선생
서울		서울대교구 망우동 성당(중)	임복규 선생
울산		부산교구 병영 성당(고)	하영애 선생
춘천		착한목자수녀회 젊은이 모임(총)	김혜선 수녀
기타	대구	복현동 흠스쿨링(고)	김영건 선생
	서울	삼성꿈장학재단(총)	김효정 선생

진행 현장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시 작 일
학교	광주	은혜학교(고)	이명호 선생	2016. 4. 4
	경북	영천선화여고(고)	김미영 선생	2016. 3.19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총)	박광훈 신부	2016. 3.19
		효성중학교(중)	이태화 선생	2016. 4. 4
		효성중학교(중)	사금연 선생	2016. 4. 4
		효성중학교(중)	허선아 선생	2016. 4. 4
		경산여자중학교 동아리(중)	사금연 선생	2016. 5.20
		경산여자중학교 동아리(중)	전수영 선생	2016. 5.20
	마산	성지여자고등학교(고)	정은선 선생	2016. 3.15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시 작 일
학교	마산	성지여자고등학교(고)A반, B반	김미진 선생	2016. 3.16
		성지여자고등학교(고)A	하채원 선생	2016. 3.15
		성지여자고등학교(고)B반, C반	하채원 선생	2016. 3.17
		성지여자고등학교(고)A반, B반	이연복 선생	2016. 3.17
		성지여자고등학교(고)A반, B반	장은영 선생	2016. 3.16
	천안	월봉고등학교(고)	강정혜 선생	2016. 4.20
종교 단체	광주	광주대학교 봉선유안 성당(총)	장남희 선생	2016. 4. 2
		광주대학교 봉선유안 성당(중)	박경단 선생	2016. 4. 2
	대구	대구대학교 국우성당(고)	김미영 선생	2016. 3.20
		대구대학교 성 정하상 성당(중)	김외택 선생	2016. 3.13
		대구대학교 성 정하상 성당(중)	김태연 선생	2016. 3.13
		대구대학교 성 정하상 성당(중)	허선아 선생	2016. 3.12
		대구대학교 성 유대철 성당(중)	박주원 선생	2016. 3.20
		대구대학교 성 유대철 성당(중)	서성진 선생	2016. 3.20
		대구대학교 경산사동 성당(총)	홍경희 선생	2016. 4.22
		대구대학교 경산사동 성당(총)	허선아 선생	2016. 4.25
		대구대학교 경산사동 성당(총)	백민주 선생	2016. 4.25
		대구대학교 경산사동 성당(총)	김외택 선생	2016. 4.26
	대구대학교 경산사동 성당(총)	전수영 선생	2016. 5. 5	
	서울	서울대학교 고척동 성당(중)	박진경 선생	2016. 6.12
		서울대학교 고척동 성당(중)	정정예 선생	2016. 6.12
		서울대학교 고척동 성당(고)	김효정 선생	2016. 6.12
		서울대학교 고척동 성당(고)	조정란 선생	2016. 6.12
	울산	부산교구 병영 성당(중)	오세익 선생	2016. 4.16
		부산교구 병영 성당(중)	하영애 선생	2016. 4.16
	인천	인천교구 검단동 성당(중)	이이란 선생	2016. 2.27
		인천교구 검단동 성당(중)	최종남 선생	2016. 2.27
		인천교구 부평3동 성당(중)	김수진 선생	2016. 4. 2
		인천교구 부평3동 성당(중)	이상림 선생	2016. 4. 2
		인천교구 부평3동 성당(고)	박인서 선생	2016. 4. 2
		인천교구 부평3동 성당(고)	남문자 선생	2016. 4. 2
기관	광주	소화누리 소망의 집(총)	이은정 선생	2016. 5.15
	서울	꿈사리공동체(총)	황윤정 선생	2016. 5.14
	인천	인천지역아동센터교사회(총)	조정옥 선생	2016. 3. 2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중)	황윤정 선생	2016. 3.11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중)	김기환 선생	2016. 3.11
기타	대구	두꺼비협동조합(총)	김미영 선생	2016. 6. 1



☆ 2016년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진행 현황

제128차 마산

- 주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국틴스타
- 주최 : 천주교 마산교구 가정사목국
- 기간 : 6월 18일(토)~19일(일), 25일(토)~26일(일)
- 장소 : 마산교구청 4층 회의실

제129차 서울

- 주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국틴스타
- 주최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국틴스타
- 기간 : 7월 4일(월)~7일(목)
- 장소 : 서울대교구 교구청 신관 3층(회의실2호)

제130차 광주

- 주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국틴스타
- 주최 : 광주대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
- 기간 : 8월 8일(월)~11일(목)
- 장소 :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제131차 인천

- 주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국틴스타
- 주최 : 인천교구 생명사랑운동본부
- 기간 : 8월 27일(토)~28일(일), 9월 3일(토)~ 4일(일)
- 장소 : 인천교구 노동자센터

☆ 후원회원과 틴스타 교사를 위한 미사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틴스타는 후원하신분과 틴스타 교사를 위해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11시 파밀리아 채플**(명동 교구청 신관 앞 건물)에서 **생명을 위한 윌레미사**(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주관)에서 함께 봉헌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윌레미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한국틴스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일궈나갑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CMS 신청서를 이용해 주시거나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후원통장 : 우리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1005-100-998647
국민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875401-01-517401

발행일 : 2016년 6월 1일 (통권 제46호 여름호-계간 발행)
발행처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한국틴스타
주 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명동2가) 가톨릭회관 603호
전 화 : 02)727-2358, 755-2629

홈페이지 : www.teenstar.or.kr
E-mail : kteenstar@hanmail.net
팩 스 : 02)727-2243